

Handball

핸드볼코리아

2023년 5·6월 제64호

KOREA LEAGUE

두산과 삼척시청,
실업리그 마지막 왕좌 지켰다

INTERVIEW

“우리의 목표는 유럽 팀을 이기는 것”
헨리크 시그넬 여자대표팀 신임 감독

MVP INTERVIEW

8년의 무명 설움 딛고 펼친 날개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MVP 이한솔

FOCUS

“우생순 뛰어넘는 핸드볼 콘텐츠 만들자”
〈대한민국 핸드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현장 중계

TEAM

‘언더독’ 반란을 꿈꾼다
간절함으로 무장한 경남체고

COVER STAR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
삼척시청 통합우승 이끈 김온아 & 김민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3년 5·6월 제64호



02 KOREA LEAGUE

두산과 삼척시청,
실업리그 마지막 왕좌 지켰다

06 KOREA LEAGUE

이요셉과 강경민,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

08 COVER STAR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
삼척시청 통합우승 이끈 김은아 & 김민서

14 MVP INTERVIEW

8년의 무명 설움 딛고 펼친 날개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MVP 이한솔

18 FOCUS

“우생순 뛰어넘는 핸드볼 콘텐츠 만들자”
<대한민국 핸드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현장 중계

22 INTERVIEW

“우리의 목표는 유럽 팀을 이기는 것”
헨리크 시그넬 여자대표팀 신임 감독

26 COURT SIDE

덕업일치 삶,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SK호크스 키다리아저씨 강신규 선임

28 CLUB

생활체육의 즐거움에 경쟁의 치열함이 더해졌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0 U-LEAGUE

역시는 역시! 대학 최강다웠다
한국체대 남녀 동반 우승

32 TEAM

‘언더독’ 반란을 꿈꾼다
간절함으로 무장한 경남체고

34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3년 6월 10일 | 통권 64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두산과 삼척시청, 실업리그 마지막 왕좌 지켰다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결산

“걱정은 기우”

두산의 왕조는 계속된다

남자부의 경우 두산이 정규리그 14승 3무 3패로 1위를 차지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고, 인천도시공사와 하남시청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두산의 결승전 상대를 정하게 됐다. 플레이오프에서 하남시청을 29-26으로 꺾은 인천도시공사가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도 두산을 승부던지기 끝에 꺾어 이변을 일으키는 듯했다.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는 두산이 2014시즌을 제외하고는 한 번

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두산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구창은, 황도엽, 나승도 등 지난 시즌 우승 멤버가 팀을 떠났고,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등 리그 개막을 앞두고 ‘우승 후보’에도 거론되지 못했다. 그러나 윤경신 감독의 리더십과 정의경과 박찬영 등 고참들의 존재가 팀의 중심을 잡았고 이한솔, 김연빈, 김민규, 김동욱 등이 분전하며 챔피언결정전 2, 3차전을 연달아 잡아내고 리그 8연패 쾌거를 이뤘다.

윤경신 두산 감독은 “늘 개막 전에 ‘타도, 두산’이라는 얘기를 들었

지난해 11월 개막한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가 5월 남녀부 챔피언결정전을 끝으로 7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시즌은 개막 전부터 팀별 전력 평준화로 인해 그 어느 시즌보다 재미있는 판도가 예상됐다. 특히 남자부에서는 7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두산이 ‘우승 후보’에 끼지 못하고, 여자부에서도 리그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광주도시공사가 최강으로 평가받는 등 예년과 달라진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남자부는 두산의 8년 연속 우승, 여자부는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의 2연패로 마무리됐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 마음이 편하기도 했지만, 자존심에 살짝 상처가 난 것이 사실”이라며 “선수단의 40%에 가까운 선수 7명이 바뀌어 어려운 시즌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따라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결승에 오른 인천도시공사는 1차전을 잡아내며 분전했지만 리그 첫 우승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다만 정수영, 윤시열, 심재복 등 베테랑 선수들로 이뤄진 공격력을 앞세워 프로화를 앞둔 다음 시즌을 앞

둔 희망을 밝혔다.

반면 개막을 앞두고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SK호크스는 4위에 그쳐 플레이오프에도 오르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다.

결국 SK는 시즌을 마친 뒤 감독 공개 모집에 나서며 팀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도청과 상무는 이번 시즌에도 5, 6위에 머무르며 아쉬운 성적에 그쳤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삼척시청,
통합우승 2연패**

여자부에서도 삼척시청의 우승은 다소 예상 밖의 결과였다. 개막 전 미디어데이에서 8개 구단 감독들은 광주도시공사, SK 슈가글 라이더즈의 강세를 전망했다. 그러나 이계청 감독이 이끄는 삼척시청은 정규리그에서 16승 2무 3패를 기록, 13승 5무 3패의 광주도시공사를 제치고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바로 올라갔다. 삼척시청 리그 2연패에 성공한 것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삼척시청은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국가대표 에이스 출신 김온아

를 영입했고,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도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김민서를 지명했다. 1988년생 김온아와 2004년생 김민서의 나이 차이는 무려 16살이다. 리그 개막 전만 하더라도 둘의 영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였다. 김온아는 그동안 부상 등으로 인해 전성기 시절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반대로 김민서는 실업 데뷔 시즌에 키 160cm 단신의 핸디캡을 얼마나 이겨낼 지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그러나 김온아는 114어시스트로 어시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팀 공격을 조율했고, 김민서는 득점 2위(142골), 어시스트 4위(97개) 등으로 공격 포인

트 합산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결국 삼척시청은 챔피언결정전 상대 부산시설공단을 1차전 30-26, 2차전 30-25로 연파하며 2년 연속 왕좌를 놓치지 않았다. 김민서는 플레이오프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거머쥐며 최고의 데뷔 시즌을 보냈다. 준우승한 부산시설공단은 시즌 도중 SK와 2대2 트레이드까지 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골키퍼 가비나와 피봇 강은혜를 SK로 보내고 대신 골키퍼 김수연과 피봇 이한솔을 받는 트레이드였다. 강은혜는 특히 강재원 부산시설공단 감독의 '애제자'로 알려졌다. 점에서 뜻밖의 트레이



이드이기도 했다.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한 부산시설공단과 SK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만나 부산시설공단이 28-21로 패승했고, 부산시설공단은 여세를 몰아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2위 광주도시공사를 28-22로 꺾었다. 결국 개막을 앞두고 우승 후보로 꼽혔던 광주도시공사와 SK는 챔피언결정전에 나가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에이스' 강경민을 도와줄 선수의 활용, SK는 시즌 개막에 앞서 심해인, 송지은을 영입하고 시즌 도중에 또 2대2 트레이드를 하는 등 조직력의 강화 등이 속세로 지적됐다. 포스트 시즌에 나간 삼척시청, 부산시설공단, 광주도시공사, SK와 5-8위에 머문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남개발공사, 대구시청의 '4강 4약' 체제가 더욱 굳어진 가운데 하위권 팀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제는 프로 리그 향해 달릴 차례
2023-2024시즌부터 출범**

핸드볼은 2023-2024시즌 프로 출범을 준비 중이다. 프로 출범을 앞두고 이번 시즌 여자부 일부 경기에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실험적 조치들도 진행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한일 정기전과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등에도 예전에 비해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김온아(삼척시청), 권한나(SK) 등 인기 선수들을 보려는 팬들의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대한핸드볼협회가 이를 어떻게 리그 전반으로 확산해 프로 원년을 준비할 것인지 기대된다. 외국인 선수의 확대, 홈 앤드 어웨이 경기 방식의 정착, 실업 때보다 한 차원 높은 기록 체계의 확립, 팬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강화 등이 프로 리그 성공의 조건으로 자주 거론된다. 물론 프로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올해 하반기 남녀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은 리그 인기를 더욱 끌어올릴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이요셉과 강경민, 가장 빛나는 별이 되다! 2022-2023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시상식 결산

2022-2023 SK 핸드볼코리아리그가 7개월간의 뜨거웠던 여정을 마무리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정상에 오른 팀은 두산과 삼척시청이었다. 지난 시즌과 같은 결과다. 그러나 정규리그 MVP와 BEST 7 수상자 명단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달랐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영광의 주인공이 됐을까.
글. 김희수 기자

센터백 이요셉 & 강경민, 나란히 MVP의 영예를 안다

남자부 정규리그 MVP는 상무피닉스의 센터백 이요셉이 차지했다. 지난 투표 결과, 10표를 받아 김동욱 정수영 신재섭(이상 7표)을 제쳤다.

팀은 3승 17패(승점 6)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이요셉의 활약은 빛났다. 득점 2위(147점), 7M득점 2위(29점), 속공득점 4위(22점) 돌파 득점 1위(34점), 어시스트 2위(123어시스트), 공격포인트 1위(270개)

에 올랐다. 윙득점과 블록슛을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의 주요 스탯 순위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 뿐만 아니라 2020-2021시즌부터 2021-2022시즌까지 총 757분 28초의 러닝타임을 기록한 이요셉은 이번 시즌에만 1182분 32초를 뛰면서 주전 선수로서의 내구도까지 입증했다.

여자부 정규리그 MVP의 주인공은 광주도시공사의 센터백 강경민이었다. 2020-2021시즌에도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강경민은 2021-2022시즌 오사라(GK, 경남개발공사)에게 내줬던 MVP 트로피를 다

시 가져왔다. 이요셉처럼 강경민도 훌륭한 스탯을 기록했다. 득점 1위(195점), 7M득점 1위(50점), 속공득점 3위(29점), 돌파득점 4위(29점), 어시스트 2위(109어시스트), 공격포인트 1위(304개)에 올랐다. 특히 공격포인트 부문에서는 2위 김민서(CB, 삼척시청)와 65개라는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겹치는 선수는 단 두 명!

완전히 달라진 BEST 7 수상자

두산의 8시즌 연속 우승과 삼척시청의 2연패로 끝난 리그 최종 결과와는 달리, BEST 7 수상자 명단은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달랐다.

남자부의 경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BEST 7 수상자 명단이 한 명도 겹치지 않았다. 김동욱(GK, 두산), 박세웅(PV, SK호크스), 이요셉, 박광순(LB, 하남시청), 신재섭(RB, 하남시청), 이한솔(LW, 두산), 하민호(RW, 인천도시공사)가 이번 시즌의 BEST 7으로 선정됐다.

김동욱은 방어율 1위(44.56%), 세이브 3위(221세이브)를 기록하며 두산의 수호신으로 활약했다. 하남시청의 양 날개 박광순과 신재섭은 39점의 속공득점을 합작하며 날아올랐고, SK호크스의 피벗 박세웅은 20개의 블록슛과 13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팀의 후방에 철벽을 세웠다. 이한솔과 하민호는 윙득점에서 각각 2위(23점)와 3위(21점)에 올랐고, 속공득점에서도 각각 8위(18점)와 1위(30점)에 오르며 코트를 활발하게 누볐다.

충남도청을 제외한 모든 팀이 BEST 7 수상자를 배출하며 고른 분포를 보인 남자부와 달리, 여자부는 4개 팀만이 BEST 7 수상자를 배출했다. 박조은(GK, 광주도시공사), 김보은(PV, 삼척시청), 강경민, 김은아(LB, 삼척시청), 유소정(RB, SK슈가글라이더즈), 윤예진(LW, 서울시청), 전지연(RW, 삼척시청)이 이번 시즌 여자부 영광의 주인공들이다. 여자부 역시 강경민과 유소정만이 지난 시즌 BEST 7 수상자일 정도로 명단에 변화가 컸다.

박조은은 288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1위 오사라(경남개발공사)에 단 두 개가 밀리는 2위를 차지했다. 방어율 41.5%로 리그 유일의 40%대 방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척시청은 무려 세 명의 BEST 7 수상자를 배출했다. 피벗 김보은은 31개의 블록슛과 20개의 스틸을 기록했고, 여자 핸드볼 최고의 스타인 김은아는 어시스트 1위(114개)와 돌파득점 3위(30점)에 올랐다. 라이트윙 전지연은 윙득점 2위(42점), 속공득점 5위(28점)를 차지했다.

유소정은 돌파득점 1위(37점), 어시스트 5위(83개)에 오르며 슈가글라이더즈의 든든한 오른쪽 날개로 활약했고, 윤예진은 윙득점 7위(28점), 속공득점 6위(26점), 7M득점 3위(48점)에 오르며 각종 공격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

2022-2023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수상 내역

정규리그 MVP	이요셉(상무피닉스)	강경민(광주도시공사)	
챔피언결정전 MVP	이한솔(두산)	김민서(삼척시청)	
득점상	신재섭(하남시청)	강경민(광주도시공사)	
어시스트상	정수영(인천도시공사)	김은아(삼척시청)	
골키퍼상	김동욱(두산)	박조은(광주도시공사)	
인기상	김기민(SK호크스)	권한나(SK슈가글라이더즈)	
신인상	김민규(두산)	김민서(삼척시청)	
지도상	윤경신(두산)	이계청(삼척시청)	
베스트7	GK	김동욱(두산)	박조은(광주도시공사)
	PV	박세웅(SK호크스)	김보은(삼척시청)
	CB	이요셉(상무피닉스)	강경민(광주도시공사)
	LB	박광순(하남시청)	김은아(삼척시청)
	RB	신재섭(하남시청)	유소정(SK슈가글라이더즈)
	LW	이한솔(두산)	윤예진(서울시청)
	RW	하민호(인천도시공사)	전지연(삼척시청)

2022-2023 SK 핸드볼코리아리그 개인기록 부문별 1위

부문	남자부		여자부	
	선수(팀)	기록	선수(팀)	기록
득점상	신재섭(하남시청)	164	강경민(광주도시공사)	195
어시스트	정수영(인천도시공사)	133	김은아(삼척시청)	114
공격포인트	이요셉(상무피닉스)	270	강경민(광주도시공사)	304
스틸	연민모(상무피닉스)	14	조수연(서울시청)	33
세이브	박재웅(상무피닉스)	285	오사라(경남개발공사)	290
방어율	김동욱(두산)	44.56	박조은(광주도시공사)	41.5
블록슛	이성민(두산)	30	김소라(경남개발공사)	46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

삼척시청 통합우승 이끈 김온아 & 김민서

대한민국 센터백 미래를 말하다

임오경, 오성욱, 김온아...

한국 여자 핸드볼 역사를 수놓은 센터백들이다. 여기에 센터백 계보를 이어갈 또 하나의 대형 유망주가 등장했다. 삼척시청 슈퍼루키 김민서(20)다. 아직 소녀티를 못 벗은 가녀린 새내기지만 그의 머릿 속은 온통 핸드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 성장세를 이어줄 귀한 멘토도 만났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인천시청에서 삼척시청으로 이적한 김온아(35)다. 김온아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전설’ 오성욱(51) 백업으로 10년 간 한국 여자핸드볼 주축을 이뤘던 베테랑. 마침 김민서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이자 같은 포지션이기도 하다. 이적 첫 시즌과 실업 데뷔 첫 시즌, 삼척시청의 통합우승 2연패를 일궈낸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터백 계보의 과거와 그 뒤를 책임질 미래, 김온아와 김민서를 삼척에서 만나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전력 약화 평가 뒤집고 통합 2연패
“그래서 더 기뻐요”

Q. 김온아, 김민서 선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챔피언결정전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시간 보내셨나요.

김온아(이하 온아) 지인들과 가까운데 여행도 다녀오고 폭 쉬면서 지냈습니다.

김민서(이하 민서) 우선 그동안 못 잤던 잠을 폭 자고 고향 친구들과 서울에 2박 3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Q. 온아 선수는 2017년 이후 6년 만의 우승을 맛봤어요. 또, 부상 이슈를 극복하고 이뤄낸 우승이라 더 값질 것 같은데요.

온아 SK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해 우승했을 때도 시즌 동안 부상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다행히 우승을 차지했어요. 솔직히 부담감도 적지 않았어요. 타이틀을 방어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시즌 전에는 팀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 조화가 잘 이뤄졌고 팀 컬러가 빠르게 바뀔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우승을 차지해 기분이 좋아요.

Q. 민서 선수는 신인상에 이어 챔피언결정전 MVP까지 수상했고, 베스트7에도 뽑혔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데뷔 시즌이 있을까 싶네요.

민서 솔직히 챔피언결정전 MVP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김)보은, (박)새영 언니 등 저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친 언니들이 많았거든요. 제 이름이 불린 순간 의아하기도 했어요. 모두가 함께 일궈낸 우승이기 때문에 언니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Q. 챔피언결정전을 2승으로 끝냈지만 사실 우승하기까지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습니까.

온아 시즌을 돌이켜 보면 단 한 경기도 쉬운 경기가 없었어요. 챔피언결정전은 단기전인데다 어린 선수들도 많아서 걱정 아닌 걱정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뛰던 거랑 똑같이 임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팀 내 잔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3차전까지 가면 쉽지 않을 거라 봤어요. 다행히 고비를 잘 넘기고 2차전에 끝낼 수 있어서 기뻐요.

민서챔피언결정전에서는 외국인 심판 등 정규리그 때보다 변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전을 잡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사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터라 쉬는 팀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1차전 경기 초반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1차전이 큰 분수령이었는데 잘 넘기고 2차전은 한결 더 수월하게 임할 수 있었어요.

Q. 민서 선수는 사실 데뷔 경기 때부터 범상치 않은 존재감을 뽐냈어요. 신인 선수들은 시즌 중 한뼘쯤 부침을 겪기 마련인데 별다른 적응기 없이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 잡았어요. 원동력은 어디에



“어릴 때부터
를 모델로 삼고 있던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는 것 자체만으로
좋았어요. 언젠가
온아 언니와 같이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첫
시즌 때부터 뛰게 돼
꿈만 같았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김민서

“민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예요.
신장의 핸디캡이 있는데도 직접 부딪히며 약점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막힘이 없게끔 옆에서 도움이 돼 주고
싶어요. 워낙 습득력이나 전술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민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 김온아

있을까요.

민서 청소년대회 MVP를 받은 이후로 주위 분들의 기대치가 커져서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계청 감독님과 언니들이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어요. 또 시즌을 앞두고 일본 전지훈련에서 여러 팀들과 연습 경기를 해본 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업 팀 언니들과는 처음 합을 맞춰보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지훈련을 통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 합을 잘 맞춰갔던 것 같아요.

Q. 아마와 실업 무대, 어떤 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나요.

민서 이렇게 긴 레이스를 치른 건 처음이었어요. 중, 고등학교 때는 한번 대회를 하면 길어야 열흘이었는데 실업리그에선 6개월 넘는 긴 레이스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2~3라운드 정도에는 체력적으로 부침이 느껴졌어요. 휴식이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많이 잔 거 같아요(웃음).

16살 차 핸드볼 재능, 삼척에서 한데 뭉치다

Q. 두 선수의 만남은 운명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첫 인상은 어땠나요?

온아 (운명적 만남)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민서는 신인이다 보니까 낯을 많이 가렸어요. 제가 그래도 선배니까 편하게 해주고 먼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경기 뛰는 모습 보다가 실제 같이 훈련해보니까 훨씬 더 잘하고 좋은 선수라는 것을 느꼈어요. 민서 어릴 때부터 를 모델로 삼고 있던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는 것 자체만으로 좋았어요. 언젠가 온아 언니와 같이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첫 시즌 때부터 뛰게 돼 꿈만 같았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Q. 온아 선수는 민서 선수에 대해 원래 잘 알고 있었나요.

온아 인천시청 시절 재활하고 있는 중에 청소년 대표팀 경기를 보게 됐어요. 결승전을 잠깐 봤는데 빠르고 센스 있는 선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건 그 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드래프트 때만 해도 제가 삼척시청 이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삼척시청과 협상을 하고 난 뒤, 같은 팀에서 뛰겠구나 생각했죠.

Q. 두 선수가 코트 안에서 땀 때, 더 큰 시너지가 발휘됐어요.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온아 저와 민서 모두 돌파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데 민서가 공을 잡으면 수비가 들쭉 많이 붙어요. 한쪽에 수비가 몰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좀 더 수월한 찬스가 생겨요. 민서랑 같이 뛰다보면 그런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민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팀을 이끌어내야 했다면 실업 무대에 와



서는 경기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온아 언니가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언니와 함께 뛰며 경기 조율, 템포 조절하는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앞두고 삼척시청에 합류했어요. 삼척시청은 어떤 팀인가요.

온아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팀인데 여러 측면에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팀이라는 것을 느껴요. 우선 저희가 직접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주변 환경이나 시에서 지원도 넉넉히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운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민서 일단 고향인 태백이랑 가까워서 오고 가기가 편해요. 시에서 지원도 잘해주시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언니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후배들도 자연스레 따라 열심히 하는 운동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Q. 팬들 사이에서 온아 선수 인기가 워낙 유명하고 올 시즌에는 민서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늘었다고요.



김은아
생년월일
1988년 09월 06일
신장/체중
169cm/62kg
출신교
백제고
등번호
9번
주요경력
2008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온아 올 시즌 들어 경기장을 찾아와주시는 팬들이 부쩍 늘은 것 같아요. 항상 퇴근길에 선물도 많이 주시고 있고 또 팬들께서 낯 경기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연차를 쓰고 멀리 지방까지 오시는 팬들도 계시더라고요. 저와 민서 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 팬덤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퍼지다보면 여자핸드볼을 좋아하는 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요.

“민서가 막힘없이 성장하는데 도움주고 싶어요” ‘핸드볼 바보’ 김민서, 그리고 ‘멘토’ 김은아

Q. 온아 선수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센터백 전설’ 오성욱의 백업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돼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어요. 이제는 온아 선수가 민서 선수에게 센터백 바통을 이어줄 차례인 듯합니다. 온아 선수는 센터백 계보를 이어던 선수로서 민서 선수의 향후 성장 가능성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온아 민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예요. 신장의 핸디캡이 있는데도 직접 부딪히며 약점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센터백 역할이 득점과 어시스트를 두루 가져가는 것인데, 민서는 벌써부터 이를 소화해내고 있어요. 다만, 2, 3년차가 되면 한 번쯤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뛰어넘어야 한 단계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막힘이 없게끔 옆에서 도움이 돼 주고 싶어요. 워낙 습득력이나 전술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민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Q. 민서 선수는 한국 여자 센터백 계보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서 과분하죠. 이제 1년 차 시즌을 마쳤을 뿐 아직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첫 시즌보다 더 많은 견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가야할 길이 한참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신인의 자세를 유지하며 열심히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에는 룡슛에 대한 부분을 더 가다듬어야 하고 올 시즌 통해서 드러난 약점들을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Q. 오성욱과 온아 선수 나이차가 16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온아와 민서 선수도 16살 차입니다. 그때와 지금 느낌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온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20대 초반 때 선배님들은 카리스마가 넘치셨다면 지금은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스스로 운동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무질서 속에 질서라고 할까요. 팀마다 다른데 삼척시청 선수들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배들과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서 16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언니가 친근하게 다

가와주셨어요. 비디오도 같이 보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다보니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나이에서 오는 거리감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Q. 경기장 밖에서 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온아 애어른이죠(웃음). 요즘 친구들 같지 않고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핸드볼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노잼이죠.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진중한 편이에요. 평소에 실 때도 핸드볼 비디오를 보는 등 핸드볼 생각을 많이 해요. 한번은 비디오 그만 보고 나가서 놀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사실 지금이야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후배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는데 돌아켜보면 제가 민서 나이 때도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민서 룸 메이트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언니가 생각보다 장난도 많이 치고 재미있어요.

Q. 민서 선수는 여자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성인대표팀 합류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클 것 같은데요.

민서 말로만 듣던 대표팀이잖아요. 물론 아직 예비 명단에 뽑힌 거지만 언니들 따라 열심히 해서 좋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Q. 술한 대표팀 경력으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온아 선수가 민서 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요.

온아 선수촌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언니들을 잘 지켜보면 좋겠어요. 언니들의 장점을 하나하나씩 내 걸로 만들면 민서 입장에서 더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내가 롤 모델로 삼았던 언니들과 같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 자기관리 등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Q. 두 선수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온아 올 시즌에 앞서 사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감독님 비롯 주위 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더 이상의 큰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목표를 언급하기 보다는 몸 관리를 더 잘해서 조금이라도 코트에서 더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서 작년에 청소년대회 우승한 이후로 조금 더 욕심이 생겼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안 따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보고 싶어요.

Q.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 마디 남기며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온아 좋은 후배와 한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저는 그동안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민서는 큰 부상 없이 몸 관리를 잘해서 선수생활을 건강하게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민서 온아 언니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시즌이 됐을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먼저 다가와 말도 걸어주시고 장난도 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언니와 오래오래 한 팀에서 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부상 없이 핸드볼 인생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



김민서
생년월일
2004년 02월 14일
신장/체중
160cm/58kg
출신교
황지정산고
등번호
23번
주요경력
2022 세계여자핸드볼청소년대회 우승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악물고 버텼어요,”

8년의 무명 설움 딛고 펼친 날개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MVP 이한솔

이번에도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우승팀은 두산이었다. 어느덧 여덟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이다.

‘어우두(어차피 우승은 두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산은 매 시즌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번 시즌 두산의 챔프전 우승을 이끈 주인공은 기존 주축 멤버인 정의경, 박찬영, 강전구 등 베테랑들이 아닌 무명의 윙플레이어 이한솔이었다.

이한솔은 챔피언결정전 내내 팀의 득점리더로 나서며 통합 8연패 위업의 중심에 섰다. 오랜 무명 생활, 술한 부상 위험을 버티고 이겨내 최고 자리에 우뚝 올라섰기에 더욱 특별했다. 대기만성형 선수로 데뷔 8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이한솔과 이야기를 나눴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시즌 전 평가 뒤집기 위해 팀원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

이한솔은 인천도시공사와 벌인 챔피언결정전에서 양팀 통틀어 최다인 21골을 넣으며 챔피언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우승을 결정짓는 3차전에서도 8골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데뷔 이후 상과는 좀처럼 인연이 없었던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MVP에 뽑혔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MVP로 선정된 소감을 묻자 이한솔은 “솔직히 1, 2, 3차전 모두 데일리 MVP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챔피언결정전 MVP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기쁨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두산이 우승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기선제압이 중요한 챔피언결정전 1차전, 승부던지기 끝에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이한솔은 1차전 패배가 오히려 선수들을 하나로 뭉뚱하게 하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전에서 만약 승부던지기까지 가지 않고 정규시간 내에 1~2점차로 아쉽게 패했다면 그 여파가 있었을 테지만 승부던지기 끝에 진 거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2차전은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오히려 1차전 패배가 팀을 뭉뚱하게 하는 힘이 됐고 2차전에서 그런 자신감과 여유를 바탕으로 쉽게 승리를 거뒀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올라와 2~3차전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게 눈에 띄었다. 3차

전 막판에 한번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챔피언결정전을 회상했다.

이어 “시즌 전 전력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 두산이 우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감독님께서도 올 시즌은 리빌딩 기조로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하자고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걱정도 많았고 선수단 내부적으로도 예년 시즌에 비해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주장 (정)의경, (박)찬영 형 중심으로 뚝뚝 뭉쳤고,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빠르게 팀에 녹아들어 신구조화가 잘 이뤄졌던 것 같다. 특히 피봇 (김)민규의 경우, 시즌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였다. 힘들고 처절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곳곳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민규 뿐만 아니라 선수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보이지 않은 노력들을 많이 했기에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어려웠던 만큼 느껴지는 희열도 더욱 컸다. 이한솔은 “감독님께서 한 해 한 해 지낼수록 눈물이 많아지시는 것 같다(웃음). 챔피언결정전 끝나고 회식 때도 자꾸 눈물을 흘리시더라. 감독님께서도 그만큼 그 어느 시즌보다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한 절실함이 크셨던 것 같고 저평가들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 더 의미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한다. 감독님과도 회식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서로 못 다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회포를 풀었다”고 축승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한솔
 생년월일 1992년 04월 15일
 신장/체중 179cm/80kg
 출신학교 원광대
 포지션 레프트윙
 등번호 7번
 두산베이스(2017년~현재)

역경 딛고 일어난 ‘노력형 선수’ 마침내 빛을 보다

사실 올 시즌 전까지 이한솔은 무명에 가까웠다. 원광대 시절 촉망받던 레프트백 유망주였지만 실업으로 무대를 옮긴 이후에는 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끌어내지 못했다. 기회가 올 만하면 부상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2019년에는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는 큰 부상으로 적잖은 시간을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좌절할 법도 했지만 그래도 이한솔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한솔은 “2019년도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표팀 훈련 도중,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수술을 했는데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구단에서는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에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마음 먹었다. 윤경신 감독님께서도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셨고 다행히 재활을 잘 끝마치고 2020년도에 다시 경기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힘들었던 재활 과정을 떠올렸다.

구창은, 황도엽 등 기존 윙 플레이어들이 이탈한 2022-2023시즌은 이한솔에게 또 다시 도약의 기회가 됐다. 이한솔은 2022-2023시즌 875분 16초를 출전해 64골을 넣으며 감춰왔던 공격 재능을 터트렸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생애 첫 베스트7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정규리그 활약세를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이어가 챔피언결정전 MVP에 선정, 그동안 없었던 상복을 한 번에 누리게 됐다. 사실 이한솔의 활약은 이번 시즌 들어 갑작스레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그는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득점, 공격성공률 수치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상승해 기량이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이한솔을 지켜본 관계자는 “이한솔은 노력형 선수다. 하지만 그동안 특출난 선수들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공격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더니 올 시즌 비로소 포텐을 터트려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3시즌 이한솔 득점/공격성공률 기록

2020-2021시즌	37골/72.55%
2021-2022시즌	55골/82.09%
2022-2023시즌	64골/73.56%

로건이가 준 선물 ‘분유 버프’ 이한솔 “가장의 책임감 커졌어요”

올해 이한솔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바로 지난 3월, 아들 ‘로건’ 군을 품에 안았기 때문이다. 자녀가 태어난다면 가정의 책임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갓 태어난지 70일이



지난 아들을 ‘복덩이’라고 지칭한 이한솔은 “로건아, 너가 태어나서 아빠가 큰 상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아”라며 “사실 그동안 상복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잘했던 경기에서도 팀이 저서 데일리 MVP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베스트7에 선정되고 챔피언결정전 MVP까지 받게 됐는데 주위에서도 태어난 아기가 복덩이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다. 로건이가 준 선물이 아닌가 싶다”라며 기뻐했다. 그는 아빠와 엄마 중 누굴 더 닮았냐고 묻자 “아빠 60%, 엄마 40% 정도 닮은 것 같다”며 웃음 지었다. 이어 “시즌이 끝난 뒤부터는 육아에 한창이다. 육아가 쉽지만은 않지만 한창 이쁠 때다.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이뻐 보인다”라고 덧붙혔다.

홀몸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한솔은 “시즌 중 숙소 의정부에서 처가가 있는 대구를 왔다갔다 했었는데 3~4라운드 체력적으로 지친 탓인지 경기력이 이전 라운드에 비해 가라앉았다. 그때 팀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신경도 많이 쓰였는데 아내가 멀리 왔다갔다 안 해도 된다고 배려해줬다. 그 덕분에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숙소에서 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며 “시즌 중이라 아내와 많은 시간 같이 있어주지 못했는데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묵묵히 응원해줬다.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덧 이한솔은 32살의 나이이다. 팀에서도 중고참으로서 선수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다. 그는 “20대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했던 것 같다. 또, 막내이다 보니까 형들이 해주는

조언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며 “사실 현재는 팀에서 중간급에 위치해 있는데 중간이 더 어렵다. 위에 형들과 밑에 동생들의 가고 역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힘든 만큼 무게감도 생긴다. 그러면서도 코트 안에서는 노하우드 생기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겁진 않을까. 이렇듯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대기만성형 윙 플레이어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이한솔이지만, 자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선수들 사이에서도 30살에 제2의 전성기가 온다는 얘기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활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잘했던 것보다 아쉬웠던 부분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 단단히 준비해서 다음 시즌에 임하고 싶다”며 “팀적으로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면 된다. 그렇다고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 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023-2024시즌부터 프로리그를 출범한다. 두산은 남자핸드볼 코리아리그의 마지막 우승팀에 이름을 올리게 된 동시에 프로리그 출범 이후 최초의 우승도 노린다.

기쁨도 잠시, 이한솔은 6월 초 새 시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한솔은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프로리그가 출범되는데 실업 마지막 시즌을 우승으로 장식한 만큼 프로 첫 시즌 우승에 대한 욕심도 있다”며 “그 전에 8월 전국체전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전국체전에 대한 아쉬움도 커서 이번에는 우승 타이틀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감독님 필두로 (정)의경이 형, (박)찬영이 형 등 베테랑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이 신구조화를 잘 이뤄낸다면 전국체전 우승 타이틀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생순 뛰어넘는 핸드볼 콘텐츠 만들자” <대한민국 핸드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현장 중계

대한민국은 흔히 핸드볼 강국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핸드볼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유행가 가사처럼, 영원한 건 절대 없다. 핸드볼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굳건히 하려면, 인프라 확장부터 대중적 인기 확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 핸드볼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찾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현장을 <핸드볼코리아>가 생생히 담아왔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한국체육기자연맹

“핸드볼은 왜 인기가 없을까”
냉정한 현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한국체육기자연맹(KSPU)이 주최한 <대한민국 핸드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지난 4월 2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핸드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핸드볼의 현재를 진단하고 리그 선진화 추진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오자왕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을 포함한 6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또 양종구 KSPU 회장과 정희돈 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 다음에 종합 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희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핸드

볼은 왜 인기가 없을까”라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며 축사를 시작한 정 회장은 결국 스포츠의 인기는 국제대회 성적이 좌우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한국 여자배구는 도쿄 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했다. 그 덕에 프로리그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다. 이처럼 스포츠의 인기는 결국 국제대회 성적이 핵심이다”라며 핸드볼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종목으로 여자배구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한국 구기종목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핸드볼이 희망이 될 수 있다. 핸드볼은 플레이와 규정의 직관성도 뛰어난 종목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치고 나갈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며 국제대회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인 오자왕 연구위원이 단상에 섰다. 그간 핸드볼의 비전 수립과 리그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오 위원은 최근 대한민국 핸드볼의 저변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협회에 등록된 핸드볼 선수가 2,284명, 팀이 162팀이었던 2012년에 비해 2022년에는 선수 1,527명·팀 132팀으로 10년 간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오 위원의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규모가 줄어든 것에 비해 핸드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 위원은 대중의 핸드볼에 대한 이미지 변화·친숙도와 선호도·대중 참여도를 중심으로 각각 2009년·2014년·2020년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2009년에는 ‘잘 모른다’와 ‘우생순’이 핸드볼에 대한 유익한 키워드였던 반면, 2014년에는 ‘효자종목’, ‘격렬한’ 등의 키워드가 추가됐고 2020년에는 ‘금메달’, ‘민첩한’ 등의 키워드도 추가됐다. 또한 2014년에 비해 2020년에 20대의 핸드볼 친숙도와 선호도가 큰 폭으로 증가(친숙도 16.9% → 31.9%, 선호도 22.4% → 39.9%)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핸드볼 전환점이 될 프로리그를 향한 기대

오 위원은 이와 같은 20대에서의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한 핸드볼 보급이 이뤄진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 서도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업계 종사자들이 더 노력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다. 특히 오 위원은 리그 선진화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리그가 선진화되면 꿈나무들에게 핸드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국가대표팀의 경기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그 선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국내 핸드볼계 최대 화두인 프로리그 출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오 위원은 프로 리그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해 실업리그 소속 선수 71명과 핸드볼 팬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그 선진화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수들은 당연하게도 대체로 프로리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응답한 선수 중 85%가 프로리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선수들은 올스타전, 팬 서비스와 소통, 다양한 이벤트 등이 핸드볼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팬들의 의견도 경청할 만한 의견들이 많았다. 현재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즐기는 팬들은 리그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로 평일 경기시간 저녁으로 조정·SNS 적극 활용·해설위원 전문성 검증·공식 굿즈 출시입장권 지류 형태로 변경·응원단 운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후 오 위원은 위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프로 리그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쳤다. 오 위원이 제시한 청사진에는 학교형 스포츠와의 연계를 통한 유스팬 확보·타 국가 및 종목을 참고한 선진 리그제도 도입·핸드볼미디어센터 및 마케팅 플랫폼 운영·지역 밀착 활동 강화 등이 있었다.

핸드볼 미래의 핵심 키워드 국제대회 성적, 유소년 그리고 슈퍼스타

오 위원의 발제가 끝난 뒤 짧은 휴식시간이 있었고, 이후 오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전문가들이 나란히 앉아 발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대한민국 핸드볼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준수 이노션 스포츠 전문위원은 전문 분야



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최 위원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핸드볼의 현재 지위를 꾸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지금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구성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도 마이크를 잡았다. 김 교수는 “아마추어 종목들의 프로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 핸드볼은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고착화된 문제들을 공유했던 타 프로스포츠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프로화 과정에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타 리그들이 프로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최대한 거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며 타 종목이 겪었던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선수 출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은 “대한민국은 2022년에 각종 청소년선수권을 모두 석권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제 꿈나무들에게 선수로서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매스컴에도 핸드볼이 더 많이 노출돼야 한다”며 어린 선수들이 핸드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 명의 선수 출신 전문가인 이상은 네이버 해설위원은 “핸드볼의 속제는 국제대회 성적을 올리는 것과 유소년 기반 확보라는 것에 나 역시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기력을 파악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데이터들의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들은 대표팀 선발 기준으로 쓸 수 있고, 해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장 부회장의 이야기에 동의하며 데이터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또 이 위원은 “예전에 대만과 스페인에서 선수로 계약할 때, 연령대별 지역 연고 유스팀에게 재능 기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리그 프로화 이후에는 지역 연고 유소년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유소년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권중오 SBS 스포츠취재부 부국장은 냉정하게 아픈 곳을 건드리며 발언을 시작했다. 권 부국장은 “지난 1년간 지상파에 핸드볼코리아리그가 보도된 사례가 몇 건인지 아시나. 0건이다. 언론이 시장 논리를 따르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아마추어 종목을 배려하기보다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메이저 종목 위주의 보도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스포츠가 보도 중계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의 높은 수준·지역 연고·라이벌 구도·스타와 화제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다. 핸드볼은 솔직히 이 조건들에서 모두 애매해졌다”며 매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인기스포츠로 가는 길 모두의 노력이 중요

권 부국장은 “결국 경쟁 시장에서 남자농구, 여자농구, 남자배구, 여자배구 중 하나는 꺾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스타 탄생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자배구가 남자농구보다 인기가 많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는 김영연이라는 스타의 존재 때문이다”라며 전투적인 마음가짐과 스타 메이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이날 토의의 공식적인 참가자는 아니었지만,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경청하던 최보근 체육국장이 잠시 마이크를 잡았다. 최 국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토트가 활성화된 종목은 다섯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이다.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대상 종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 핸드볼도 대상 종목으로 긍정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최 국장의 발언을 끝으로 이날 세미나의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종료됐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대한민국 핸드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핸드볼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핸드볼 발전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나온 다채롭고 유익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들은 행동 없이는 단순한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다. 이제는 핸드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을 모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



“우리의 목표는 유럽 팀을 이기는 것”

헨리크 시그넬 여자대표팀 신임 감독

올해 8월 파리올림픽 예선,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등 큰 이벤트들을 앞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또 한 차례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6개월 간 팀을 이끌었던 김 라스무센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 것. 후임으로 스웨덴 출신의 헨리크 시그넬 감독을 선임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 낯선 타국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그넬 감독은 자신의 ‘꿈’과 ‘한국 여자핸드볼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품고 도전을 결심했다. 부임 초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지로 여자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시그넬 감독을 만나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Q.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먼저 여자대표팀 감독직에 선임된 소감을 들려 달라.

우선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감독직에 선임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모든 스태프들이 환영해줘서 감사하고 훈련 또한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국에 들어온지 일주일여가 지났다. 짧은 시간이나마 느껴 본 한국 생활은 어떤가.

한국 특유의 문화, 그리고 선수들의 정신력에 매료되어 있다. 음식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사실 유럽에서만 있었던 나로선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문화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했다. 새로운 점들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중이다.

Q. 지난해에도 여자대표팀 감독 공모에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도전 만에 합격하게 됐는데.

나는 그동안 항상 도전에 열려 있었다. 20년간 줄곧 스웨덴에서 지도자 생활을 해왔지만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한국 대표팀 감독 공모에 지원하게 됐다. 꿈꾸던 바를 이뤄 기쁘게 생각한다.

Q. (한국행에 대해)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

가족과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이 나의 결정을 지지해줬다. 아내 역시 핸드볼 선수 출신으로서 “기회가 온다면 잡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얘기해주며 흔쾌히 허락해줬다.

Q. 협회와는 어떤 부분에서 교감을 주고 받았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내가 지금 이 곳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Q. 유소년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20년 간 다양한 연령대를 지도하며 지도자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를 통해 얻은 점은 무엇인가.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20년 간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건 10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선수들을 지도할 것이다. 선수들이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받아들이고 채널 의사도 있다.

Q. 바깥에서 바라본 한국 여자 핸드볼은 어땠나.

스웨덴 대표팀 시절부터 한국과 맞붙으며 느낀 바로는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뛰어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빨랐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유럽 선수들에 비해 파워나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져 있다. 핸드볼도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뤄왔고 가면 갈수록 피지컬에 대한 요소로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분명 한국 선수들만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더욱 극대화하되 피지컬적인 요소를 강화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훈련 시에도 피지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Q. 선수단 장단점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협동 플레이 등 선수들끼리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정돈된 공격이 필요하고 수비 역 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 팀을 이기는 것이다. 아직 신장, 피지컬 적인 부분에서 유럽 팀보다 열세에 있긴 하나,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 유럽 팀에 대항하려고 한다.

Q. 종목 불문하고 외국인 감독은 소통, 대화라는 키워드가 항상 뒤편다. 선수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영어, 스웨덴어, 한국어 3개 국어를 섞어 쓰고 있다. 한국어는 ‘좋아요, 멋있어요, 더 세게, 수고하셨어요’ 등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고 있다. 나를 포함한 코칭스태프가 조금 더 선수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Q. 소속팀에서 함께 몸 담았던 안톤 클라에손이 체력 코치로 합류했다.

클라에손 코치는 나와 스웨덴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피지컬 트레이닝 파트에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잘 소화해줄 수 있는 책임자다. 덧붙여 훈련은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인간의 신체는 분명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훈련 도중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계획이다.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것 또한 강팀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Q. 1차적으로 22명의 선수가 진천선수촌에 입촌했다. 향후 엔트리 변동 가능성은?

선수 명단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더 좋은 선수가 있다면 일부 선수는 교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 불만족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본 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Q. 류은희의 합류 시기는?

류은희가 합류하면 팀에게는 분명 플러스이고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아직 소속 팀 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대표팀에 합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장기 레이스를 치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다. 류은희의 합류 시기는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려고 한다.

Q. 어린 선수들의 성장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챔피언결정전 MVP 김민서를 비롯해 전지연, 강은혜 등 재능이 출중한 영건들이 많다. 이런 선수들은 유럽 리그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 어린 선수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Q.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내가 헤드코치라고 해서 선수, 스태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내리는 사람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코칭스태프와 선수, 지원 스태프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노력해 목표한 바를 이뤄냈으면 한다.

Q. 우선 8월 파리올림픽 예선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3개월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3개월이라는 시간은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변화는 결코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 길게 내다봐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한국 여자 핸드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스웨덴 역시도 덴마크나 프랑스 등 핸드볼 강국의 장점을 적극 흡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를 잘 결합해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당장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훈련 효율을 높이고 피지컬적인 면을 강화하는 등 한국 여자핸드볼이 발전하기 위한 길을 조금이나마 터주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각오를 들려 달라.

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방인이지만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팀원 모두가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헨리크 시그넬 감독은...

1976년생 헨리크 시그넬 감독은 2007년 스웨덴 국내 팀 중 하나인 사베호프 유소년팀(18세 이하 남자) 감독을 시작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18세 유소년팀을 이끌며 스웨덴 선수권에서 우승컵을 3번 들어올린 시그넬 감독은 남자팀 수석 코치를 거쳐 여자팀 감독을 역임했다. 시그넬 감독은 사베호프팀의 여자팀 감독으로 재직한 2012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 5번의 스웨덴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6년부터는 스웨덴 여자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참석한 2017년 세계선수권에서 스웨덴 여자 핸드볼 역사상 최고 성적인 4강 진출을 이뤄낸 바 있다.

“덕업일치 삶,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SK호크스 키다리아저씨, 강신규 선임

몇해 전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 구단 프런트라는 직종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그 일원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 구단 프런트는 또 하나의 꿈의 직장이다. SK 호크스 강신규(36) 선임도 그 꿈을 이룬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SK호크스 경기장을 자주 찾아간 팬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기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발로 뛰는 강 선임을 봤을 것이다. 강 선임은 스포츠 구단 사무국에 어느덧 8년째 몸담으며 ‘덕업일치’를 실천하고 있다. 두산에서 6년간 쌓았던 커리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자리를 옮겨 SK호크스의 새 가족이 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강 선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사진. 서호민 기자



Q. 프런트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SK 호크스 홈경기 운영과 선수단 지원을 비롯해 팬 마케팅, 해외 전지훈련, 선수 영입 등을 총망라한 구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 관리, 마케팅, 지역사회 공헌 등 크게 세 가지가 저희 구단의 핵심 업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단 지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요. 최필현 팀장님, 김혜진 매니저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세 명이 전반적인 구단 운영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서로 필요한 부분은 도우면서 업무 밸런싱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세 명의 업무 호흡이 척척 잘 맞아요.

Q. 리그 끝나자마자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어요. 종목 불문하고 스포츠단 직원들은 비시즌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프런트 직원들은 시즌 때보다 비시즌이 더 바쁘답니다. 선수단 전력보강뿐만 아니라 새 시즌 마케팅, 홍보에 대한 구상과 협찬사 모집 등 시즌 들어가기 전에 세팅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5~6개월이 훌 지나가요. 또 우리 구단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비시즌 때는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얼마 전에는 선수단과 함께 청주 가경천에 나가 ‘1사1하천사랑운동’이라는 환경 정화 활동을 했어요. 시즌 중에는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Happy Care’ 후원금(정규리그 1골 5만원/1세이브 10만원 적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총 5,135만원이 적립되어 충북대학교 병원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을 운영, 관리하는

등 핸드볼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에요.

Q. 그렇다면 핸드볼 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해서 구단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축구 중앙동아리 회장직을 맡기도 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 제약 영업 일을 1년 정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 하던 일을 과감히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스포츠 구단 프런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죠. 그러던 중에 두산베어스 야구단, 핸드볼단 구단 공채에 지원하게 됐고 면접을 거쳐 2017년 4월, 두산베어스 경영지원팀 총무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Q. 합격 소식을 들은 뒤 기쁨이 컸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기쁨이 컸죠.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어요. 스포츠 구단 프런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Q. 스포츠계에 취업을 꿈꾸는 팬들이 많습니다. 대학 때 어떤 공부 도움이 됐나요?

국제학부를 전공했던 게 스포츠 쪽에 종사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는데 프런트에서 하는 일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봉 관

련된 업무를 할 때도 대학교에서 회계 쪽 공부했던 것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또, 프런트 직원이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마케팅, 회계, 홍보 등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두루두루 해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입사 초기 때 핸드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야구단과 핸드볼단 2개 종목 일을 겸해서 했는데 야구는 워낙 인기도 많은 스포츠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핸드볼은 잘 몰랐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만 보는 종목이었죠. 그렇게 리그 경기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공수전환도 빠르고 스릴 넘치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윤경신 감독님 비롯해 주변 분들이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 해주시기도 했고요. 특히 6년간 핸드볼 구단 일을 하면서 윤경신 감독님으로부터 핸드볼과 관련해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Q. 두산에서 야구단과 핸드볼단을 오가며 구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두산을 떠나 있지만 오랜 기간 머문 만큼 두산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산 관계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6년 동안 일하면서 핸드볼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두산을 떠나 있지만 두산 선수들과도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박찬영, 정의경 이 두 선수에게는 인간적인 존경심을 가지게 됐어요. 찬영이 형은 엄마 같은 존재예요. 엄마처럼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동생들 얘기도 잘 들어줘요. 의경이 형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요. 묵묵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롤 모델, 선망의 대상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두산 우승했을 때도 몇몇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Q. 청주는 스포츠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 SK 스포츠 특성상 팬 프렌들리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고요. 팬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선 구단 기조에 따라 팬 프렌들리, 지역 사회 공헌이 가장 큰 목표예요. 청주 팬들의 열기가 대단해요. 핸드볼이라는 격렬하면서도 재미있는 종목을 어떻게 청주 팬들에게 좀 더 알리고 경기장으로 끌어모을지에 대해 프런트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농구, 배구 등 타 종목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럽 핸드볼도 많이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경기장 조명을 활용한 이벤트나 공연 등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경기장 조명을 많이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풀려 관중 분들이 경기장에 많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기획했던 이벤트들이 잘 이뤄져 뿌듯하기도 했어요.

처음 핸드볼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경기 전,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도 그렇고 푸드트럭 이벤트, 청주 지역 태권도 시범단 축하공연 등도 팬들께서 좋은 시도였다며 호응해 주셨어요. 팬들이 즐거워해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앞으로도 태권도 시범단 축하공연과 같이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상생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펼쳐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다음 시즌에는 더 즐거운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요.

Q. 스포츠 구단 프런트 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음지의 일입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프런트 직원들은 돈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키다리 아저씨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 신조 중 하나가 ‘돈보이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잘하자’이기도 해요.

Q. 다음 시즌부터 핸드볼도 프로화가 된다고 합니다. 구단에서는 프로화에 대비해 어떤 움직임을 취할 계획인가요?

핸드볼이 아직 대중들의 시선에는 비인기스포츠로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류 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부터 핸드볼도 프로화가 되는데 물론 완전히 프로화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협회에서도 그렇고 프로화추진위원회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프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 단계 한 단계씩 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SK호크스 구단도 프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끔 선도적인 구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협회, 구단 등 핸드볼 관계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프로화를 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SK호크스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어요. 우승은 선수,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더라고요. 원팀이 되기 위해 SK호크스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다가올 2023-2024시즌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해요. 저희는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고 더 발로 뛰려고 합니다. 너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외에도 홈 경기 때 청주 팬들을 경기장에 많이 불러 모으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공헌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





생활체육의 즐거움에 경쟁의 치열함이 더해졌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총 4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핸드볼 남자 일반부 경기가 29일, 30일 양일간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기도까지 총 7개 지역 팀이 생활체육 핸드볼의 최강자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쳤다. 4월 29일에는 예선 경기가, 30일에는 6강전과 준결승, 결승이 치러졌다. <핸드볼코리아>는 4월 30일에 현장을 찾아 명승부를 담아왔다. 과연 우승을 차지한 팀은 누구였을까.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준결승 '호남 더비' 발발!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전남과 전북의 '호남 더비'였다. 서울과 6강전을 거치고 올라온 전남에 비해 준결승으로 직행한 전북이 체력적 우위를 점했다. 전북은 여유롭고 안정적인 공격을 펼치며 3-0으로 앞서갔다. 반면 전남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을 골라인 근처에서 놓치는 등 집중력이 아쉬운 모습이 포착됐다. 전북은 골리 박종복이 선방하고, 빠르고 정확한 볼 전개까지 선보이며 경기를 조율했다. 전북은 지공과 속공을 적절히 섞어가며 11-4로 여유롭게 전반을 리드했다. 후반 초반, 양 팀의 몸싸움이 좀 격해지는 등 전반과는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졌다. 전남은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반격을 이어갔다. 전북보다 한걸음 더 움직이려는 투지가 돋보였다. 전남은 전북의 지공을 끊고 순식간에 속공을 성공시키며 11-13을 만들었고, 당황한 전북이

수비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카드를 받는 사이 또 한 번 득점을 올리며 12-13 1점 차까지 전북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북은 동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13-12에서 빼기를 박는 득점이 나오면서, 14-12로 전북이 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피 말리는 7m 승부 던지기

부산과 경기도의 준결승은 빠른 볼 전개와 치열한 초반 승부가 돋보였다. 열기가 뜨거워지다보니 부상도 속출했다. 부산 김금호와 경기 조재민, 박승협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전반을 10-8로 끝내며 어떻게든 고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부산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가며 경기도를 압박했다. 부산의 역습이 성공하며, 결국 부산이 13-13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가 15초를 남기고 마지막 공격에 실패하면서 결국 승부 던지기를 향했다. 먼저 흔들린 쪽은 부산이었다. 2-3에서 오평강의 슈팅이 선방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직후 경기 박승협의 슈팅도 골대 밖으로 나가며 부산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이 기회마저 놓쳤다. 최우석의 슈팅이 또 한 번 선방에 걸렸다. 경기도는 윤형목이 마지막 슈팅을 성공시키며 4-2로 치열했던 승부 던지기에서 웃었다.

결승 너무 지쳐버린 경기, 끝까지 버틴 전북

경기도와 전라북도 두 팀은 1일차 조별 예선에서 만났었다. 당시에는 전북이 11-10 승리를 챙겼다. 복수를 꿈꾸는 경기도였지만, 체력도 몸 상태도 정상 아니었다. 이날만 벌써 3게임 째를 치르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직전 준결승에서 부상자까지 속출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그럼에도 먼저 2득점을 올리며 투지를 불태웠다. 되레 전북이 더 지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경기는 체력 문제로 인해 지공 위주로 공격을 풀어갔는데, 이게 오히려 효과를 보면서 7-4로 전반을 앞선 채 마쳤다. 그러나 후반부터 전북의 경기력이 살아났다. 경기도가 지친 틈을 타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와 빠른 측면 돌파로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전북의 전매특허인 골리 선방 후 롱패스-11 속공 마무리 패턴도 살아나며 전북은 9-8 역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전북은 12분대 이후 노골적으로 경기 템포를 늦추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를 파훼할 체력과 몸 상태가 아니었다. 어렵게 잡은 공격 기회는 전북 박종복의 선방에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김재준의 득점으로 후반 막바지 10-11까지 추격했지만, 시간은 전북의 편이었다. 결국 11-10으로 전북이 경기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1일차 조별 예선과 같은 점수, 같은 결과가 나왔다. 🌐

MINI INTERVIEW

“경기 통해 우정 나눌 수 있어 즐겁다”

엘리트 선수들보다는 서투르고 부족할지라도, 그 동안 갖고 닦아온 실력을 뽐내고 승리의 달콤함을 맛볼 기회는 생활체육인들의 종목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더욱 부추긴다. 경주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바로 그런 자리였다. 7개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은 코트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정상을 다했다. 그러면서도 코트 위의 분위기는 마치 한 팀인 것처럼 화목하고 즐거웠다. 생활체육에 경쟁의 매력이 스며들었다.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전라북도 핸드볼 팀의 주장 문경주 역시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핸드볼을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고 했다. 문경주 씨를 만나 이번 대회 우승과 참가 소감을 들어봤다.

Q. 먼저 우승 소감을 부탁한다.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고맙다. 또 전북핸드볼협회 전병곤 회장님 및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전폭적인 지원 덕에 편하게 운동할 수 있었다.

Q. 예선에 이어 또 다시 경기도를 상대로 11-10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경기는 어떤 상대인지.

늘 우승 후보라고 느끼는 팀이다.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이야기를 동료들도 많이 한다. 경기와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매번 비등비등한 승부를 펼친다.

Q. 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잘 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전라북도 주장 문경주



초반에 범실이 좀 많았는데,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연습 때 보여줬던 것들이 점점 잘 나오기 시작한 것이 좋았다.

Q. 생활체육으로서의 핸드볼의 매력을 꼽아본다면.

핸드볼이라는 종목 자체가 다른 실내체육과 달리 허용되는 몸싸움의 수위가 조금 높다. 또 경기 전개도 빠르다. 거기에서 오는 박진감이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우리가 엘리트 선수들처럼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숨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 뛰는 과정에서 호흡이 맞아갈 때 희열이 느껴진다.

Q. 생활체육인들에게 이번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장은 어떤 의미를 갖나.

매번 이런 경기를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 체육회와 핸드볼협회에 항상 감사하다. 예전부터 핸드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단합의 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다. 물론 출신은 다 다르지만 학창시절부터 함께 했었고, 또 한때는 라이벌이었던 사람들과 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즐겁다.

Q.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젊은 선수들은 한 발 더 뛰어줬고,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종복 골키퍼에게도 고맙다. 클럽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고맙고,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한 후배들도 다음에는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성적이 전부 아니니, 앞으로도 다 같이 즐겁게 핸드볼을 했으면 좋겠다.

역시는 역시! 대학 최강다웠다

한국체대, 2023 영주사랑 전국 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 남녀 동반 우승



한국체대가 2023 영주사랑 전국 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정상에 올랐다.

한국체대(남자1부)는 5월 17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원광대와 접전 끝에 24-22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체대는 올 3월 열린 종별선수권대회 이어 2대회 연속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같은 날 열린 여자부 결승에서는 한국체대(여자1부)가 한국체대가 위덕대와 1승 1패로 동률을 이룬 뒤 득실차에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총 2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간 경북 영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대학 1부(엘리트)와 2부(생활체육)로 나뉘어 진행됐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줄 부상 당고 남녀 동반 우승...챔피언 DNA 깨어나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체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남녀 모두 주축 선수들 가운데 부상자들이 속출, 약자들이 겹친 것. 대회 전후 부상자 속출로 전망이 어두웠지만, 한국체대의 강팀 DNA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한국체대는 두꺼운 스쿼드로 이를 메웠다. 남자부에서는 지난 종별선수권대회부터 물오른 득점감각을 뽐내고 있는 3학년 김찬영을 중심으로 4학년 김정혁, 김민재가 만형으로서 굳건히 팀을 지탱했다. 이 가운데 김찬영은 이번 대회 20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원광대와의 결승전에서도 7골로 팀이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여자부 역시 4학년 조은빈이 팀 득점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맹활약한 가운데 신입생 김승원부터 4학년 신현진까지

저학년과 고학년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남녀부 동반 우승을 이끈 한국체대 백상서 감독은 “남녀 모두 지난 종별 대회에 이어 전력상 부상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선수들이 부상자들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줬고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든 점에 대해서는 “부상자들이 속출해 이를 대비해 기동력, 조직력을 가다듬는 훈련을 많이 했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선수들 개개인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준비했는데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부분들이 대회에서 잘 발휘해줬고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훈련 효과를 설명했다.

INTERVIEW

한국체대 백상서 감독

Q. 모처럼 만에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소감은?

남녀 모두 지난 종별 대회에 이어 전력상 부상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선수들이 부상자들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줬고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Q. 남녀 모두 부상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약재를 딛고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남자에선 김정혁, 김민재를 중심으로 뒷선에서는 이창우 골키퍼가 든든히 세이브를 해줘서 우승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여자에서도 조은빈이 주축이 되어 노련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선수들 모두가 이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강했다.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상 선수들 뒤통까지 다 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Q. 이번 대회를 총평하자면.

부상자들이 속출해 이를 대비해 기동력, 조직력을 가다듬는 훈련을 많이 했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선수들 개개인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준비했는데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부분들이 대회에서 잘 발휘해줬고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원광대 선수층이 가면 갈수록 두꺼워져 저희 로선 쫓기는 입장이 됐는데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Q. 7월 태백산기 대회, 8월 전국체전 등 중요한 대회들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태관이와 재호가 곧 팀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선수들이 복귀하면 그래도 선수 가용 폭이 한결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우선 7월에 열리는 태백산기 대회에 초점을 맞춰 계획이다. 더 나아가 8월 있을 전국체전에서 실업팀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보겠다.

INTERVIEW

최우수선수 김정혁, 조은빈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에는 김정혁과 조은빈이 선정됐다. 올해를 끝으로 나란히 졸업을 앞둔 김정혁과 조은빈은 코트 리더로서 선수단을 하나로 뭉뚱 뭉치게 했고,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투혼을 일깨웠다. 코트 안에서도 이들은 주전 레프트백과 센터백으로서 제 몫을 다하며 한국체대의 동반 우승에 일조했다. 김정혁과 조은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기쁘고 후배 선수들이 잘 버텨주며 부상자들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줬다. 후배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Q. 대회 우승 소감을 말해달라.

김정혁 부상자가 많아 선수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4학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후배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약재를 딛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조은빈 우선 남자부와 동반 우승을 차지해 기쁘고 여자부 같은 경우에도 아픈 선수들이 많아서 힘든 상황이었다. 더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고 열심히 뛰어준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Q. 여러 약재를 딛고 차지한 우승이기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김정혁 포기하지 않고 동료들을 믿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체대 만의 팀워크, 팀원들 간의 소통,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조은빈 주축 선수 4명 정도가 이번 대회에 빠져서 그동안 경기에 많이 투입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뛰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냈다.

Q.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김정혁 사실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건 처음이다. 제가 최우수선수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팀원들이 있었기에 이런 큰 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낯설기도 했고 색다른 기분이었다.

조은빈 후배들이 끝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이런 상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후배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Q. 남은 대회 목표는?

김정혁 가장 중요한 건 몸 관리다. 저를 포함해 팀에서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종별선수권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태백산기, 전국체전까지 전관왕을 차지해보고 싶다.

조은빈 안 다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다. 부상자들이 곧 복귀하는데 팀에 복귀하는 선수들과 손발을 잘 맞춰 태백산기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싶다.

Q. 4학년을 마치면 실업 무대에 도전한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김정혁 우선 실업팀에 가는게 첫 번째 목표이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또 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리더십 있게 나서서 팀을 지탱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조은빈 마친가지로 드래프트를 통해 실업 팀에 가는 게 목표이고 어느 팀을 가건 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

대회 결과

남자대학1부	1위 한국체대	2위 원광대	3위 조선대, 경희대
여자대학1부	1위 한국체대	2위 위덕대	
남자대학2부	1위 서울대	2위 경희대	3위 영남대, 부산교대
여자대학2부	1위 서울대	2위 경인교대	3위 한국체대, 부산교대
최우수선수상	김정혁(한국체대), 조은빈(한국체대)		
우수선수상	이승민(원광대), 최영선(위덕대)		



‘언더독’ 반란을 꿈꾼다 간절함으로 무장한 경남체고

한국 핸드볼의 미래이자 젖줄인 학생 선수. 이 가운데 초, 중, 고 아마 선수들은 핸드볼 미래를 이끌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핸드볼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가 되면서 일찍이 선수의 꿈을 키우는 아마 선수들 모두가 귀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지방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협회장배 3위,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물

1985년 개교한 경남체육고등학교(교장 김경열)는 2016년 핸드볼부를 창단하며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다. 이 학교 출신의 실업 선수로는 지난해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에 나선 오예나(서울시청), 홍주예(부산시설공단), 안혜인(대구시청) 등이 있다.

경남체고는 지난 3월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3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대회에서 3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강호 강원 한지정보산업고를 상대로 6년 만에 승리를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전국 여고부 팀 중에서 신장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데다 선수수급 등 변변치 않은 실정 속에 전국의 강호들을 연이어 꺾으며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간절함이 빚어낸 결과였다.

경남체고는 지난 2016년 창단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전 대회에서 결승까지 승승장구하고도 높이 싸움에서 밀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은 경우가 많았다. 비록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경남체고는 ‘여장부 리더십’으로 무장한 이근미 코치를 중심으로 간절함 하나로 근근히 버티며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입상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근미 코치는 “체고 특성상 새벽 운동과 야간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새벽에는 체력 운동 위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더욱이 핸드볼이 60분 동안 실 새 없이 뛰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 훈련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전국 팀 가운데 신장이 가장 낮기 때문에 ‘스피드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로 선수들이

임하고 있다”라고 훈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코치는 지난 3월 대한핸드볼협회장배 대회의 백미로 꼽혔던 황지정산고와의 맞대결을 돌아보며 “황지정산고와는 리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 막판 2분 퇴장 변수가 발생했고 체력적인 면에서 밀려 역전을 당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발휘해줘서 재역전승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남체고는 준결승에서 광주 조선대여고에 승부 던지기 끝에 석패했다. 승부 던지기에서 2-4로 패한 경남체고는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코치는 “선수들은 너무나 잘 싸워줬다. 피봇 자리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 공백을 메우려 열심히 버텼지만 막판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승부 던지기까지 갔다는 점은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고 끝까지 잘 싸워준 선수들을 격려했다. 창단 멤버로서 8년째 팀을 지도하고 있는 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와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선수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적인 면에서는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실업 팀 혹은 사회 생활을 할 때도 좋은 평가를 듣곤 한다.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며 지도자로서 철학을 이야기했다.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경남체고’

이러한 분위기 덕에 경남체고 선수들은 훈련 시간에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 코치가 생각하는 지방 팀으로서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그는 “선수 수급이다.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경남권 내에 연계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제가 2016년 핸드볼부 창단 멤버로 들어와 8년째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처음 창단됐을 때만 해도 4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그만두는 선수들이 발생하면서 선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선수를 수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저희 체고

육상부, 투척부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데려와 겨우 경기에 뛸 수 있는 7명을 채웠다”면서도 “다행히 3년 전, 진주동중 핸드볼부가 창단하면서 정상적인 연계 육성이 이뤄질 조짐이다. 또, 2월 달에는 금산초가 초등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금산초가 5월 말 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연계학교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다. 초, 중, 고에 맞는 운동을 시켜서 연계 육성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싶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반겼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핸드볼을 놓지 않았던 경남체고와 이근미 코치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년 전인 2021년에는 교내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으로 선수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핸드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용 경기장 건립으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충분한 훈련시간 확보를 통한 경기력 향상, 그리고 주변 학교(금산초, 진주동중)와의 연계 시스템도 더욱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이 코치는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건 우리 학교 운동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점이다. 체육관, 기숙사 모두 지어진지 5년이 안될 정도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알고 타 지역에서도 전지훈련을 의뢰하는 학교들도 많다”고 학교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이 코치는 팀의 목표로 선수들의 장밋빛 미래를 언급했다. 이 코치는 “지난해 세계청소년대회 우승 주역 두 선수가 졸업했고 또 지금 1학년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들이 많다. 골키퍼 유정원의 경우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고 정지운, 백시는 등도 핸드볼 2세 출신인데 부모님의 좋은 피를 물려 받아 신체 조건도 좋고 재능도 출중해 잘 가다듬으면 대표 선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선수들이 올해, 내년 성장해준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은 미래를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핸드볼 선수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다”고 자신의 역할을 되새겼다.

경남체고가 명문 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꾸준한 성적으로 지방 팀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이근미 코치는...

1975년 5월 8일생인 이근미 코치는 마산양덕여중-마산여상을 거쳐 실업 팀 청주시청에서 6년 간 선수 생활을 했다. 1998년 은퇴 이후에는 양덕여중에서 12년 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정유라, 오사라, 김소라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발굴했다. 경남체고 코치로 선임된 건 2016년으로, 창단 멤버로서 8년째 경남 지역 핸드볼 유망주들을 육성하고 있다.

선수명단	15 구나윤	23 임소의	41 정지운
	17 김태영	27 김선운	24 정연우
	37 유정원	14 유희제	9 백시는
	13 전예람	16 이승현	



협약식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신한금융그룹과 국가대표 후원 협약

대한핸드볼협회가 신한금융그룹과 손을 맞잡는다. 대한핸드볼협회는 5월 22일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핸드볼 국가대표팀 후원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오는 6월30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부터 신한금융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6월부터 3년 간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로서 2024 파리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은 “핸드볼 도약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해준 신한금융그룹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에 부응해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핸드볼 종목의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국제대회에서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선물한 핸드볼 대표팀을 후원하게 돼 기쁘다”며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남녀 핸드볼 대표팀, 푸마 입고 뛴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와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후원협약으로 푸마는 2025년 1월까지 한국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팀에 유니폼과 경기용품 등을 지원한다.

한국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해 9월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24 파리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서 푸마 공식 유니폼과 경기용품을 착용한다. 주니어·청소년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다.

푸마는 핸드볼 기술과 노하우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돕는 건 물론 국내 핸드볼 문화 저변 확대에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핸드볼코리아리그와 연계해 리그 활성화 기여 및 상호 마케팅 협력을 통해 국내 핸드볼 팬의 외연 확장에도 힘을 예정이다. 세계 최정상급으로 꼽히는 독일, 덴마크 등을 후원해왔던 푸마는 국내에도 눈을 돌려 지난 2021년부터 광주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삼척시청 등과 후원 계약을 맺으며 실업팀을 지원해왔었다.

이나영 푸마코리아 대표는 “국제 무대에서 지속해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핸드볼 문화 전반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아



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에서 핸드볼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경기용품을 후원해줘 감사하게 생각하며, 핸드볼 대표팀의 경기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푸마와 한국 핸드볼이 함께 빛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순위/부문	여자초등부	남자초등부	여자중등부	남자중등부
1위	황지초(강원)	복수초(대전)	휘경여중(서울)	선산중(경북)
2위	한별초(충북)	동부초(경기)	인화여중(인천)	글꽃중(대전)
3위	사수초(대구)	무안초(전남)	세연중(강원)	창원중앙중(경남)
	구월초(인천)	삼척초(강원)	인지중(부산)	천안동중(충남)
최우수선수	정혜인(황지초)	이도윤(대전복수초)	김지영(휘경여중)	송유빈(선산중)

복수초, 전국종별선수권서 창단 첫 우승 쾌거…휘경여중 14년 만 정상

대전 복수초가 핸드볼 전국종별선수권서 창단 첫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복수초는 지난 4월 30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막을 내린 대한핸드볼협회 주최 제78회 전국종별선수권에서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여자 초등부에서는 황지초가 정상에 등극했다. 남자 중등부에선 진천중이 지난 3월 경남 고성에서 치러진 협회장배 선수권에 이어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여자 중등부에선 휘경여중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남자 고등부에선 선산고가, 여자 고등부에선 일신여고가 각각 우승했다. 대학부에서는 남녀 모두 한국체대가 정상에 오르며 대학부 최강임을 과시했다. 대회 최우수선수로는 허서현(황지초), 김도현(복수초), 김은율(휘경여중), 박인석(진천중), 조윤희(일신여고), 배창현(선산고), 최유나, 김찬영(이상 한국체대)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86개 팀이 참가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됐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이도윤(복수초), 정혜인(황지초), 송유빈(선산중), 김지영(휘경여중)이 선정됐다.

제78회 전국종별선수권 대회 결과

순위/부문	여자초등부	남자초등부	여자중등부	남자중등부	여자고등부	남자고등부	여자대학부	남자대학부
1위	황지초	대전복수초	휘경여중	진천중	일신여고	선산고	한국체대	한국체대
2위	대구사수초	무안초	인화여중	선산중	인천비즈니스고	천안신당고	위덕대	경희대
3위	금산초	동부초	사수중	천안동중	황지정산고	전북제일고		
	무안초	삼척초	동방여중	중평중	정읍여고	대전대성고		
최우수선수	허서현(황지초)	김도현(복수초)	김은율(휘경여중)	박인석(진천중)	조윤희(일신여고)	배창현(선산고)	최유나(한국체대)	김찬영(한국체대)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5·6월호(vol. 64)에 대한 의견을 7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푸마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에는 상무 선수들이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는데 덕분에 상무 선수들의 일과나 생활 패턴에 대한 궁금증을 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발로 뛰는 분들을 조명하는 인터뷰도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알리나 선수와 가비나 선수의 애뜻함이 묻어나는 인터뷰도 잘 봤고요. 리그가 끝난 뒤 비시즌 휴식기에 한창인데 선수 분들 휴식기 통해 재충전 잘 하시고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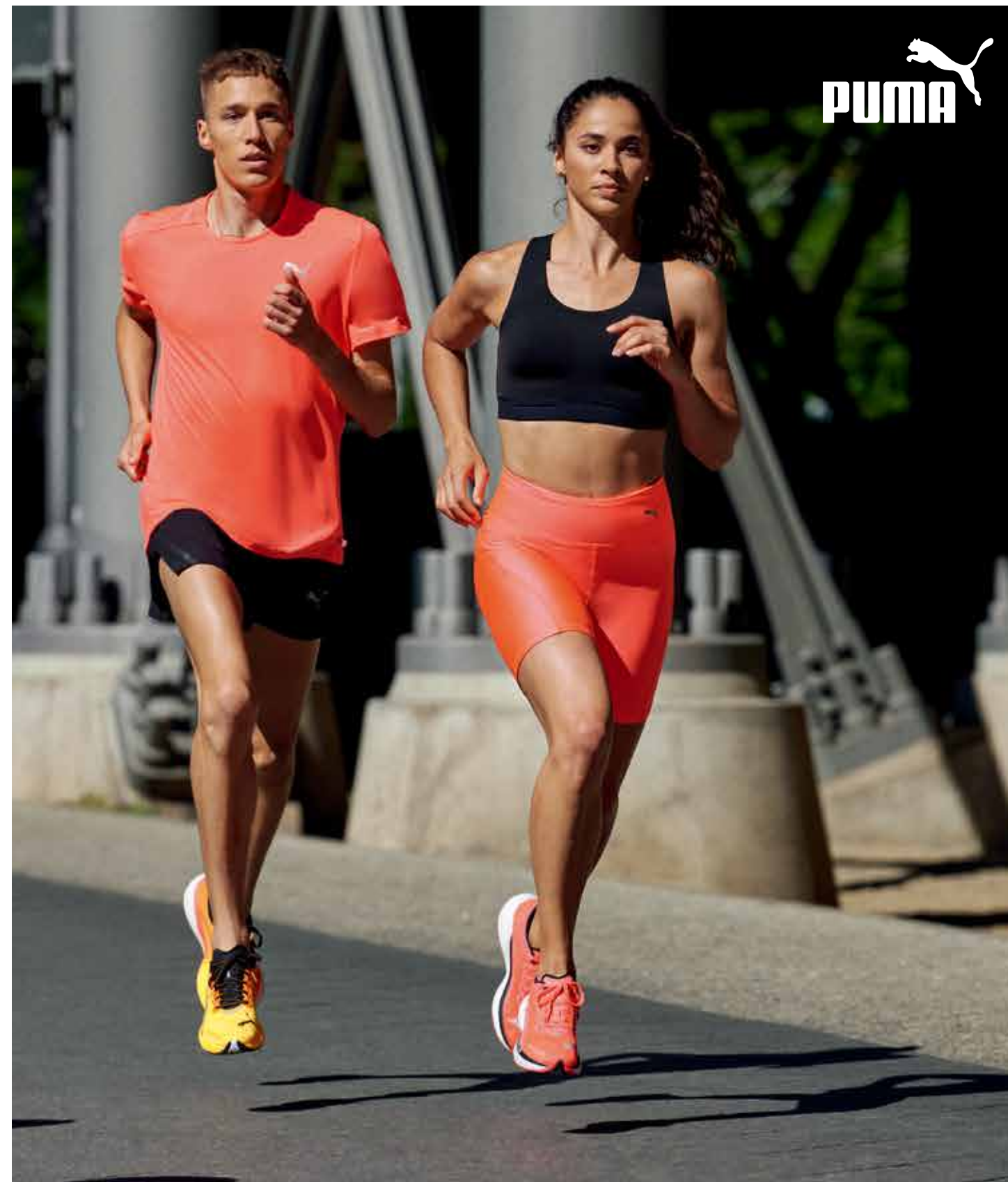
<박영원>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믹스스포츠
070-4367-1482



NITRO ELITE

푸마의 혁신적인 미드솔 기술, 나이트로 폼
뛰어난 경량성과 반응성, 쿠셔닝,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제공



DEVIATE NITRO 2



DEVIATE NITRO 2 WNS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우리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힘든 여름을 보내지 않도록
전국 369개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